

야구부, 산뜻한 3연승...목표는 우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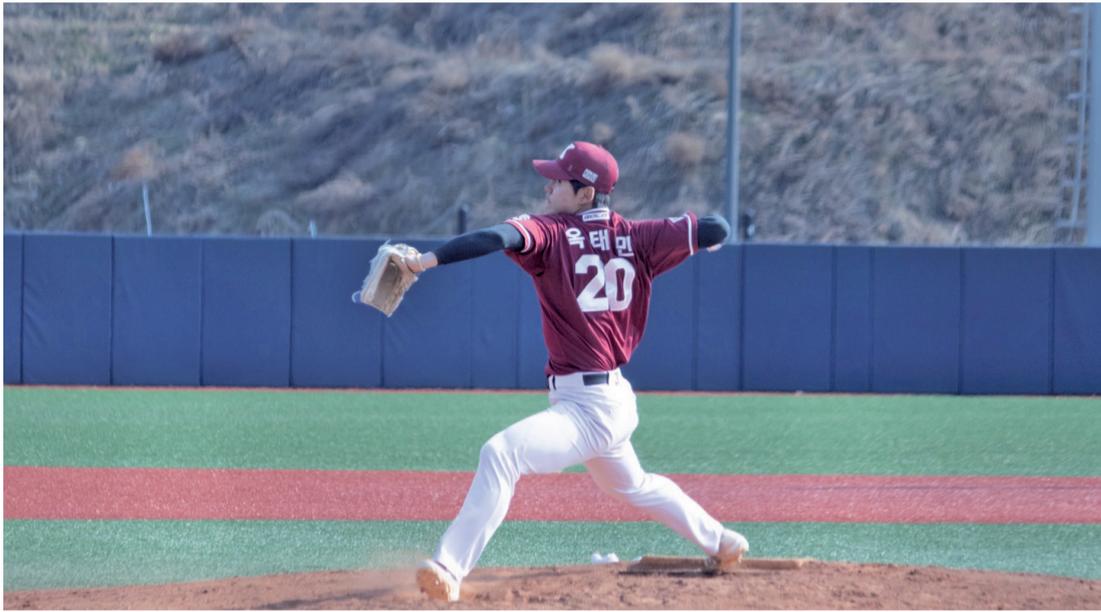
권도연 기자 khudy94@khu.ac.kr

【국제】지난달 27일, '2025 KUSF 대학야구 U-리그'가 개막됐다. 야구부는 개막전에 서울대를 상대로 콜드승을 거둔 것을 시작으로 3연승을 질주 중이다. 몇 해간 부진한 성적을 거뒀던 우리학교 야구부지만, 3연승으로 25년도 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했다.

지난 3일, 강원도 원주 태장공원 야구장에서 열린 시즌 첫 경기에서 서울대에 5회 17-1 콜드승을 거뒀다.

이날 주목할 선수는 선발투수 옥태민(스포츠지도학 2023) 선수였다. 옥 선수는 1회 말부터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했으며, 3회까지 상대 팀 타자들에게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았다.

다음날 같은 곳에서 열린 두 번째 경기에서는 제주관광대를 9-4로 제압했다. 우리학교는 2회 선취 2점을 내며 앞서갔지만, 4회 2-3으로 역전당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다. 그



지난 3일, 야구 개막전의 선발투수였던 옥 선수는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았다.

(사진=야구부 프런트 제공)

러나 5회부터 8회까지 매 이닝 득점하며 9-4로 재역전에 성공했다. 이날 역전의 선봉장에는 5타수 4안타를 기록한 고민재(스포츠지도학 2023) 선수가 있었다.

시즌 세 번째 경기에서는 경민대

를 11-0으로 물리치며 다시 한번 5회 콜드승을 거뒀다. 이날 선발투수 김태형(스포츠지도학 2024) 선수는 5이닝 동안 단 4개의 피안타를 허용했다. 타선에서는 박효성(스포츠지도학 2023) 선수가 안타 한 개와 2

개의 볼넷을 골라내며 활약했다.

개막전 승리를 이끈 옥 선수는 "지금까지 준비한 대로만 하자는 생각으로 공을 던졌다"고 말했다. 또한 "위기 상황에서는 도망가기보다 '타자랑 싸우자'는 생각으로 입

혔던 것 같다"고 말했다. 팀의 연승 비결로 "선수들이 평소에 하던 루틴을 잘 지키고,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몸 관리를 잘해주신 덕분에 좋은 컨디션으로 시합에 임할 수 있었다"고 짚었다.

이번 대학야구 U-리그에는 전국 51개 야구부가 참가했다. 참가팀은 5개의 조로 나뉘어, 조별 예선을 거쳐 각 조 상위 5팀이 왕중왕전에 진출한다.

왕중왕전에서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챔피언을 가린다. 우리학교는 강릉영동대, 건국대, 경민대, 서울대, 신안산대, 여주대, 연세대, 제주관광대, 한국골프대와 함께 B조에 속했다.

옥 선수는 "이번 시즌에서 개인적으로는 마운드에서 제 공을 자신 있게 던지며 기회를 잡는 선수가 되고 싶다"며 "팀 목표는 조 1위로 왕중왕전에 진출해 우승하는 것"이라고 올 시즌 목표를 말했다.

한편, 우리학교는 오는 17일 한국골프대와 경기를 앞두고 있다.

'철인' 최태원, 야구부의 새출발 이끈다

권도연 기자 khudy94@khu.ac.kr

야구부 최태원(체육학 1989) 감독

최태원(체육학 1989) 감독은 프로야구에서 '철인'으로 통하던 선수였다.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전주를 연고로 하던 쌍방울 레이더스 프로야구팀에 입단한 뒤 10년간 프로생활을 하며 1,009경기 연속 출장이라는 대기록을 썼다. 1997년에는 포지션 별로 당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하는 골든글러브 2루수 부문을 수상했다. 은퇴 후 2005년부터 17년 동안 프로야구단 코치 생활을 이어가다, 2023년 모교의 감독으로 다시 돌아왔다.

야구부의 올해 시작은 산뜻했다. 서울대를 만난 개막전에서 5회 만에 경기를 끝내버렸다. 최 감독은 "다행히 방심하지 않고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." 이어 "옥태민(스포츠지도학 2023) 선수가 최근 2년간 부상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, 이날 마운드에서 차분하게 선발 역할을 잘 소화한 것 같아 다행"이라고 말했다.

비록 초반이지만, 투타 전반에서



최 감독은 "팀의 승리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(사진=야구부 프런트 제공)

고른 활약을 보이는 가운데, 야구부가 시즌 전 가장 집중할 부분은 '체력 보강, 수비 강화, 팀워크와 팀배팅, 그리고 정신적 측면'이었다. 최 감독은 특히 팀워크를 강조했다. "선수는 팀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하고, 팀의 승리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시즌이 시작하고 3연승을 달린 만큼, 팀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. 최 감독은 파이팅 넘치는 선수들의 모습, 팀원 간 사이가 돈독한 점을 우리학교 야구부의 차별점으로 언급했다. "선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분위기를 북돋우고 있다."

시즌 초반 연승 비결로 "한 경기 한 경기 이기고자 하는 선수들의 마음이 큰 것 같다"고 말했다. 팀을 위해 뭐라도 하려는 생각이 하나둘씩 모여 좋은 시너지를 냈다는 것이다.

최 감독은 3연승의 주역으로 고민재(스포츠지도학 2023) 선수를 꼽았다. 고 선수는 지난해 수비에서

불안한 모습을 보였다. 하지만 비시즌 준비를 철저히 한 탓인지, 수비와 타격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실제로 지난 4일 제주관광대와 경기에서 5타수 4안타로 맹활약했다. 최 감독은 "작년 가을부터 비시즌 동안 수비에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다"고 전했다.

이어 "다른 선수 모두 전투력이 향상된 것 같고, 기본기에 충실한 모습도 좋아 보인다"며 "25학번 신입생 8명, 편입생 2명이 새로 들어왔는데, 전반적으로 적응을 잘하고 있고, 바로 시합을 뛰는 선수도 몇몇 있다"며 선수들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.

최 감독은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. 야구 선수는 가족보다 동료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이다. 최 감독은 "서로 간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팀워크로 이어지는 것 같다"고 덧붙였다.

최 감독과 야구부 선수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올 시즌 목표는 우승이다. 최 감독은 "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,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다"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.